백두산 2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탄신 90돌 특집

주체91(2002)년 4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자

≪역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영도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영도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십니다. 인류사상사를 놓고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론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 수 있는 위인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사상을 마련하여주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 인민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화목한 생활은 수령과 사회성원들사이, 사회성원들 호상간의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령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인덕의 정치를 베풀기 때문에 수령과 사회성원들사이에 가장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성원들 호상간에도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의 관계가 꽃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하나도 덜지 말고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우리 인민은 역사적 체험과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인가 하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충성과 효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 의무일 뿐아니라 국제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우러르는 수령님을 모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예를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것은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긍지와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조선민족의 긍지,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남북총선거

미제에 의한 남조선정권의 조작을 계기로 우리 나라 정세는 새로운 엄중한 국면에 이르렀다.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의 완전한 식민지화와 민족분열의 영구화를 방지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국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미제와 이승만을 단죄하고 규탄하며 남조선의 ≪국회≫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실천적 대책이 요구되었다.

김일성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우리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여 1948년 6월 29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소집하였다.

김일성은 회의에서 지체없이 전조선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는 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았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새워야만 미제의 민족분열정책의 산물이며 신식민주의정 책의 도구인 정권의 비법성을 철저히 폭로할 수 있으며 남북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인민들을 더욱 굳게 단합시키고 국제적 연대성도 일층 강화하면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었다.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적 중앙정부 수립에 관한 방침은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는 남조선에서 강압적으로 실시된 단독선거의 무효를 선언한 다음 전조선적인 선거를 실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중앙정부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남북조선 전지역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48년 8월 25일 온 민족의 비통한 열의와 감격 속에서 진행되었다.

북반부지역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유권자의 99.97%가 참가하여 98.49%의 찬성투표로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반동들의 방해책동을 고려하여 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북반각지역에 모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남조선에서 선거가 벌어지자 미군정과 남조선반동분자들은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비상경계태세를 선포하고 미군기동부대를 38선전연(전방)으로부터 제주도 끝까지 배치했으며 반동경찰과 테러단들을 총동원하여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인민들이 서명투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높은 애국적 열의와 구국항쟁의 투지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유권자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407명이 선거에 참가하여 1,080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피선된 대표자들은 북반부지역인 해주에 들어와서 8월 21-26일 사이에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여기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남조선인구 5만명에 1명 비례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역사적인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남북조선에서 선거된 572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었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은 첫째,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의 동원,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인 소미 양국군대의 동시철거의 실현 둘째,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의 청산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법적 처벌, 반동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와 파괴책동의 폭로분쇄 셋째, 일제 및 남조선정부의 법령들의 무효 선포,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개혁의 실시 넷째,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적 민족경제의 건설 다섯째,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공고발전과 남조선지역에서의 그 복구 일곱째,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적 관계의 설정 여덟째, 조국의 보위와 민주개혁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주권으로서 항일혁명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이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혁명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없는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가진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었으며 새 생활창조와 조국통일위업의 수행을 위한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공화국의 창건은 사회주의나라들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하고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기의 확고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천명하고 국제민주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힘썼다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국제민주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며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여 세계 평화와 안전,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는 걸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국가,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맺기 위하여 적극 힘썼으며 미제의 각 방면으로 되는 흉악한 방해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들과 상호평등, 우호,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국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공화국정부는 공화국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부당한 결정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였다.

1949년 2월에는 전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만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엔이 응당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공화국정부는 즉시 ≪유엔조선위원단≫을 해체하고 조선인민 자신에게 통일적 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참가없이 조선문제에 관한 그 어떤 결정이든지 채택될 경우에는 그것을 무효로 인정≫한다는 것을 엄숙히 성명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조선으로부터 (유엔조선위원단)을 즉시 철거시키며 자체의 힘으로써 조국을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로 완전히 통일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준열히 폭로배격함과 함께 미제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있는 범죄적 흉책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포츠담선언의 모든 조항이 무조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와 같은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그 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청소한(역사가 짧은 경험이 적은)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며 국제민주역량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대조선역사

김일성주석님의 건국업적 만대에 빛나

9월9일은 이북의 공화국창건기념일이다.

쉰세번째 연륜을 아로새기며 찾아오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는 이 시각 우리 민중은 북녘동포들과 더불어 가장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러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오신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일찍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대전의 피어린 투쟁으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신 어버이주석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민중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공화국의 창건, 이것은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출현을 알리는 일대 민족사적 대경사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이북민중은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고 이북은 세계의 대소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는 자주독립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

공화국의 창건은 낙후와 빈궁 속에서 헤매이던 이북민중이 자주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가속해 나갈 수 있게 한 역사적 전환의 계기로 되게 하였다. 건국의 시조이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국가수반으로서 국가건설과 활동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이북을 세상에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었다.

공화국은 그 창건과 강화발전의 역사로 보나, 지도사상과 사명의 견지로 보나 오직 주석님의 존함으로만 불리울 수 있는 **김일성**주석님의 국가이다. 공화국정권의 역사적 뿌리도 그분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공화국의 창건도 그분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며 공화국의 튼튼한 정치, 경제, 군사적 토대도 그분의 영도밑에 이룩되었다. 어버이주석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고 주석님의 영도는 공화국의 끝없는 융성과 번영의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3년간의 6.25전쟁,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압살책동,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 속에서도 유독 이북만이 끄떡하지 않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주석님의 세련된 영도의 결과이다.

참으로 공화국정권이야말로 경애하는 주석님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은 선대영수에 대한 후계영수의 무한한 충성심과 현명한 영도에 달려 있다.

오늘 이북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국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승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정력적인 영도로 끝없는 융성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주체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도록 하시는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시고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 주시었으며 최고인민회의(국회)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헌법을 채택, 발표하는 조치를 취해 주셨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세계제일강국, 세계제일민족으로 일떠세우시려고 온갖 노고를 다 바쳐 오신 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온 겨레를 통일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계시는 분이 다름아닌 **김정일**영수님이시다.

오늘 우리 이남민중은 이북을 희망의 등대로 여기고 있다. 세계만방에 위풍당당히 과시되고 있는 공화국의 모습에서 영원토록 강성부흥할 통일조국의 휘황한 내일을 낙관하고 있다.

역사의 유구함은 결코 그 역사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시간의 누적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로 보아야 한다.

공화국의 50여년 역사의 무게는 지나온 모든 시대, 모든 역사적 단계의 무게를 다 합친 것으로도 견주지 못할 거대한 무게를 안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사 반만년에 처음으로 맞이한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위대성과 업적의 무게이다.

이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만년토대로, 원동력으로 하여 공화국은 지나온 50여년도 영광스러웠지만 앞날은 더욱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할 것이다.

구국전선 - 주체90. 9월 1일

자주의 강국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지켜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존엄과 영예를 떨칠 수 있다.

오늘 이북현실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1948년 9월9일 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이북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주성을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처히 구현하여 자주의 한길을 억세게 변함없이 걸어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을 공화국의 지도사상으로 제시하시고 시종일관 자주정치를 실시하시어 이북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일떠세우시었다.

이북에서는 하나의 노선과 정책을 세워도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기성이론에 매달리지 않고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현실에 걸맞게 세웠으며 다른 나라들이 큰나라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에도 독자적인 길을 걸어 왔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이 ≪코메콘≫에 들어가 민족적 이익을 침해당할 때에도 이북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견지하여 세계의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적 발전과 번영의 한길을 걸어온 것은 자주정치의 생동한 실증으로 된다.

이북이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은 것은 자주정치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관하게 실시해 오신 자주 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승계발전되어 오늘 이북은 자주의 강국으로 만방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라는 위대한 구호를 제시하시어 이북을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관한 강령적 과제를 제시하시어 이북이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입장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진로를 밝혀 주시었다.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 나가신다.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사회주의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할 때에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침해한다면 그 어떤 침략세력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폭탄같은 자주선언으로 조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다.

장군님의 자주정치가 있어 이북은 오늘 제국주의반동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 속에서도 승리의 자신감높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하기에 이북민중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창건해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도하시는 자주의 강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주의 강국 이북의 모습에서 우리 이남민중은 통일된 강성대국, 민족의 찬란한 내일을 보며 자신감에 넘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워가고 있다.

구국전선 - 주체90. 9월 1일

민중정권의 뿌리

이 땅의 천만대중의 삶과 희망의 좌표이고 이상향인 공화국은 창건된지 50여년밖에 안되지만 참다운 민중정권의 원형은 이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면서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정권건설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정에 올랐다.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자면 그 영역내의 민중들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을 건설해야 하였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1932년 가을부터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정부들이 출현하였다. ≪소비에트열풍≫은 인차 온 동만땅을 휩쓸었다. 그러나 얼마간 지나자 유격구사람들은 소비에트시책에 등을 돌려대기 시작했다.

소비에트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양식으로부터 낫, 호미, 걸잇대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렸으며 유격구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밑에 움직이도록 하였던 것이다.

좌경적인 소비에트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기었다.

많은 가정들이 소비에트정부의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통치구역으로 떠나가버리었다.

당시 남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어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새로운 정권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새 정권건설노선은 노동자와 빈고농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통일전선적 인민혁명정부노선이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걸맞고 민중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정권형태였다.

왕청현 가야허에 인민혁명정부가 시범적으로 수립되어 그 우월성이 발휘되자 동북만지방의 모든 소비에트들이 인민혁명정부로 개편되었다. 인민혁명정부는 토지무상분배와 8시간노동제, 무료교육과 무료치료제를 실시하였다. 남녀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좌경적인 소비에트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로 갔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유격구로 돌아왔으며 유격구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대가정이 되었다. 인민혁명정부는 말그대로 일제의 압박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사람들을 한품에 안아주고 품어주는 진정한 민중의 참정권이었다.

바로 이 정권을 건국의 뿌리로 하여 솟아난 정권이기에 공화국은 오늘 세상사람들로부터 ≪인류의 이상향≫,≪민중복지의 참세상≫으로 칭송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국전선 - 주체90. 9월 1일